

# 20세기 미주 이민 서북인의 홍경래란에 대한 기억

전낙청의 〈홍경래전〉에 대한 고찰

이지영

충북대학교 부교수, 국어국문학 고전문학 전공  
yiji419@cbnu.ac.kr

- I. 머리말
- II. 서사적 특징
- III. 홍경래란의 재구성
- IV. 맺음말

## I. 머리말

19세기 초에 일어난 홍경래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관군 및 의병으로 참전한 사람의 기록<sup>1)</sup>뿐만 아니라 전란의 와중에서 적에게 맞서 싸우다 죽은 인물에 대한 칭송의 글들, 난이 진압된 이후에 전란에 대한 감회를 읊은 한시나 가사, 그리고 허구적인 내용이 다소 섞인 글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문이 그때의 기억을 전하고 있다.<sup>2)</sup> 19세기에 나온 이러한 글들에서는 홍경래란을 흉년으로 인해 흉흉한 민심을 틈타 일어난 역도(逆徒)들의 반란으로 평가하였다.<sup>3)</sup>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20세기에 들어와서 크게 바뀌었다. 대표적으로 1917년에 간행된 <홍경래실기>에서는 홍경래를 ‘시세를 만나지 못한 영웅’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신문과 잡지에서도 거듭 확인된다.<sup>4)</sup> 예컨대 1920년에 간행된 『개벽』 5호의 <홍경래와 전봉준>에서 홍경래는 신분, 지역 등의 차별에 저항한 비운의 영웅으로, 홍경래란은 부조리한 조선왕조에 대한 저항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1931년 <동아일보>에 현상윤의 이름으로 연재된 한문본 <홍경래전>에서는 홍경래를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다.<sup>5)</sup>

---

\* <홍경래전>을 비롯한 전낙청의 소설은 따님인 엘렌 전과 손녀 멜린다 로가 보관하고 있다가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 기증하였다. 필자는 동아시아문화학과의 박선영 교수를 통해서 원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도서관장 Kenneth Klein이 전낙청의 소설과 조카 전경무의 자서전 등 상당분량의 관련 스캔 자료를 보내준 덕분에 읽을 수 있었다. 자료를 제공한 유족과 도서관장님, 그리고 박선영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 1) 대표적으로 『진중일기』와 방우정의 『서정일기』가 있다.
- 2) 홍경래란에 대한 문인 지식인의 시각에 대해서는 정한국, 「홍경래란을 바라보는 시선」, 『동악어문학』 55(2010)에서 다양하게 접근한 바 있으며, 가사 <정주가>에 대해서는 이승복, 「<정주가>의 구조와 작가의식」, 『고전문학과 교육』 11(2006)에서 자세히 고찰했다.
- 3) 정한국, 위의 논문 참조.
-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 참조. Sun joo Kim, *Mar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pp. 169-170.; 성아사, 「홍경래란을 소재로 한 상업출판물 연구: 방각본 <신미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 49-61쪽.
- 5) 한문본 <홍경래전>은 이우성·임형택 공역, 『이조한문단편집 하』(일조각, 1978)에 20세기 초의 작품으로 소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정한국은 한문본 <홍경래전>이 수록된 <홍경래임신사략>을 1872년에 완성된 자료로 보아 한문본 <홍경래전>이 19세기에 창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아사는 이 자료에 언급된 ‘영조’와 ‘정조’ 등의 명칭이 1890년 이후에 사용되었다는 점, 또 발문에서 이장연의 시대에서

전낙청의 〈홍경래전〉 또한 20세기 이후에 한글로 창작된 홍경래 관련 서사물이며 홍경래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데, 원고지 2,000매에 달하는 상당한 분량의 장편으로 홍경래란을 허구화한 본격적인 창작소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구나 그는 1875년 평안도 정주에서 태어났으며 1904년에 하와이로 이주했던 1세대 이민자이다.<sup>6)</sup>

그가 19세기 평안도에서 성장했다는 점은 특히 주목되는데, 홍경래란에 대해 저술한 누구보다도 홍경래란에 대한 서북지역의 기억을 접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up>7)</sup> 더구나 그는 홍경래군의 마지막 항전지였던 정주 출신이었으며, 그가 사용하는 ‘순조도(純祖朝)’, ‘시린(是年)’, ‘룽강’ 등의 표기나 ‘머구리(개구리)’, ‘오만이(어머니)’ 등의 평안도 방언은 작품의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낙청은 〈홍경래전〉 외에도, 앞부분이 누락되어 도서관에서 소장할 때 ‘untitled’라고 표기한 작품도 남겼다(이하 〈홍중래전〉). 〈홍중래전〉은 홍경래란이 끝나고 50여 년 뒤에 반란에 관련되었던 홍문거의 후손 홍중래(洪重來)가 등장하여 다시 한 번 봉기를 도모하지만 실패한다는 이야기이다. 인물과 내용이 연결되고 있어 〈홍경래전〉, 〈홍중래전〉은 홍경래란과 관련된 연작으로 볼 수 있다. 홍경래란과 관련 있는 장편소설을 두 편이나 집필한 것을 보면, 전낙청에게 홍경래란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을 것이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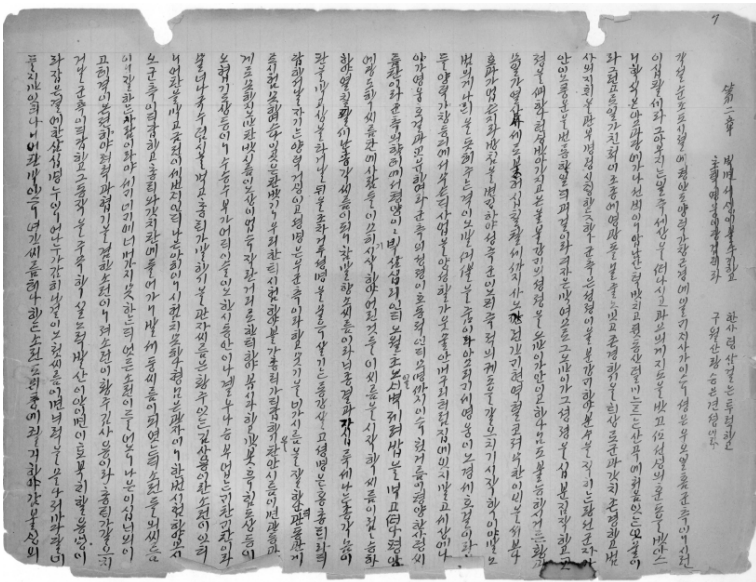
수백 년이 지났다고 언급한 점을 등을 들어서 이를 반박하였다(성아사, 위의 논문, 57쪽의 각주 85번). 이를 참조하면 한문본 〈홍경래전〉이 1873년에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듯하다.

- 6) USC 도서관의 Kenneth Klein이 작성한 가계도와 전낙청의 딸 엘렌 전이 남긴 기록 및 그의 조카 전경무가 쓴 미간행 자서전 〈Quest in Exile〉에 의하면, 전낙청의 아버지 전채수, 형 전낙준 부부와 두 아들, 전낙청의 부부는 일본을 거쳐 하와이 가와이섬에 도착하였으며, 이곳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그러다가 1907년에 전낙청은 아내, 자녀 및 조카 둘을 데리고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로 이주하였으며, 리버사이드의 오랜 지 농장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1953년에 사망했다.
- 7) 〈홍경래전〉을 〈동아일보〉에 연재한 현상윤도 정주 출신이었으며, 역시 정주 출신인 김소월의 〈물마름〉과 백석의 〈정주성〉을 지은 것도 역시 홍경래란에 대한 정주 사람들의 각별한 기억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호영, 「〈정주성〉 시 해석의 일 방향」, 『한중인문학연구』 36(2012) 참조.
- 8) 이밖에도 전낙청은 19세기 말을 배경으로 한 〈부도〉, 미국 이민 2세를 주인공으로 한 〈救濟의強盜〉, 〈失母之貓〉, 〈五月花〉 등 3편, 중국을 배경으로 영국인과 중국여성, 캐나다여성의 연애를 다룬 〈可憐의墳墓〉(뒤에 〈三角戀愛墓〉로 개칭) 등의 소설을 창작하여 총 7편의 소설을 남기고 있다. 영어 어휘를 섞어서 쓰고 있는 〈구체적강도〉 등과 달리 〈홍경래전〉, 〈홍중래전〉, 〈부도〉 등은 영어 어휘가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조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작품들과는 창작 시기가 다를

전낙청의 <홍경래전>은 오랫동안 그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다가 몇 년 전 USC대학에 기증되었기에 그동안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던 만큼 이 글에서는 우선 <홍경래전>의 내용을 가급적 충실히 소개하고 홍경래란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를 짚어 보고자 한다.

## II. 서사적 특징

### 1. 작품경개



전낙청 <홍경래전>

전낙청의 <홍경래전>은 전체 19회장의 회장체 소설인데, 현재 전하는 원고에는 첫 번째 장이 누락되어 18회장이다. 행갈이나 띄어쓰기 없이 매면 세로쓰기로 필사되어 있는데, 매면 28행의 세로 줄이 있는 노트에

것으로 추정된다. <홍경래전>은 1917년에 간행된 <홍경래실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 이 시기 이후에 창작된 것은 분명하나 정확한 창작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총 344면의 분량으로 필사되어 있다. 1줄 당 글자수는 대략 41-44자 정도로, 200자 원고지 2,000매에 근접하는 장편소설이다.

“각설 순조도 시절에 평안도 양덕 가창 근경에 일기 직사가 이스니 성은 우오 일흠은 군축이니 시런 이십팔 세라.”의 서두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한글소설처럼 장면 전환시 ‘각설’이나 ‘이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라’ 등의 종결어미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인물을 먼저 소개하고 인물과 함께 그 부모와 집안을 설명하는 방식도 조선시대 한글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다. 다만, 인물 간의 대화에서 “왈”이나 “가로되”와 같은 인용표지 대신에 발원자의 이름만 적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20세기 이후 간행물의 영향을 받은 듯하지만 문장부호나 띄어쓰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표기문자는 한글이지만, 간혹 한자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디자는 막여모로”, “성즉군이오 패즉적”, “력발산이 안이면 토틁힐할 용땡” 등 한문 어구를 자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한시도 삽입되어 있어 작자의 교양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sup>9)</sup>

각 회장(回章)의 제목과 해당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 ① 누락됨.
- ② 한사당(閑似亭) 삼걸(三傑)는 투력(鬪力)하고 구월산 랑승(兩僧)은 견성(見性)이라: 평양의 한사정 씨름판에서 우군칙과 김사용, 홍총래가 만나 의기투합하고 김사용은 구월산에서 루불강과 두 중 운수와 무효를 만나 뜻을 같이함.
- ③ 초택영웅(草澤英雄)이 당검기(杖劍起)하니 봉필서생(奉筆書生)이 투필니(投筆來)라: 홍경래가 김이대를 찾아가 동지가 되고, 이후 김이대는 서도 차별에 불만 품은 김창시와 교유함.
- ④ 군축은 미복구영웅(賣卜求英雄)하고 불강은 답산심진인(踏山尋真人)이라: 우군칙이 복자(卜者) 행세를 하며 함께 할 인물을 찾아보고

9) 전경무의 <Quest in Exile>에 “My uncle knew astronomy and had studied the course of the stars. He read classics of Confucius and of Mencius, the Poetry of Li Po, and discoursed in the Philosophy of Laotze”(28면.)라고 서술된 내용으로 보아 전낙성이 『논어』, 『맹자』, 『주역』, 『노자』와 唐詩를 학습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원문에는 한자가 병기되지 않았으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자 어구에 한자를 병기한다. 또한 원문의 회장은 일부 중복되어 있는데, 중복된 부분을 정정하여 회장 번호를 적는다.

루불강은 안주로 가서 지관(地官) 행세를 하면서 이능백을 끌어들이.

- ⑤ 김창서는 횡청청람(橫淸淸南)하고 홍경리는 초상당안(初上長安)이라: 김창시가 윤항목, 윤원섭, 김오개, 송현교, 차재옥 등을 포섭하고 홍경래가 상경하여 연주문에 포부를 적은 글을 적음.
- ⑥ 김형두는 부식총극(扶植叢棘)하고 우군측 호소군영(呼訴軍營)이라.<sup>11)</sup>: 홍문거가 가주내 김형두를 포섭하여 가시성을 만들도록 하고 홍경래가 안주병사를 만나 대규모 군사훈련의 필요성을 주장함.
- ⑦ 우군측이 유력북진(遊歷北鎭)하고 홍경리는 루련당안(留連長安)이라: 우군측이 함경도를 다니며 인물을 물색하고 홍경래는 서울 광통교 기방에서 이호민, 당기풍을 제압하여 사귀.
- ⑧ 순사병사(巡使兵使)가 디연조(大鍊操)하니 별장별초(別將別抄)이 징선공(爭先功)이라: 평양감사와 안주병사가 각기 군을 청남북으로 나누어 가상 전투를 벌임.
- ⑨ 흥디풍은 지하경락(再下京洛)<sup>12)</sup>하고 홍문거는 \*\*두영이라: 홍경래가 상경하여 광통교에서 이호민, 당기풍, 이하영과 교제하고 안주병사가 홍문거를 불러 대연조의 배경을 캐물음.
- ⑩ 당살풍은 유혹엄부(誘惑嚴父)하고 리호민은 우릉판서(愚弄判書)라: 당지풍이 부친인 훈련대장에게 북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호민도 부친 이만수에게 북벌을 주장함.
- ⑪ 당디장 영향디관(宴饗大官)하고 홍경리는 심방참의(尋訪參議)라: 훈련대장이 고희연에서 대관들에게 북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호민의 주선으로 심상규와 홍경래가 만나 북벌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함.
- ⑫ 우군측 지유관북(再遊關北)하고 살칼풍은 초참디회(初參大會)라: 우군측이 함경북도를 살펴보고 이호민, 당지풍이 윤원섭의 집에서 열린 대회에 처음으로 참석.
- ⑬ 당지풍은 지임절도(再任節度), 홍경리는 사하당안(四下長安)<sup>13)</sup>이라: 이호민이 부친에게 청탁하여 당지풍이 절도사를 재임하고 상경한

11) 6회에서 안주병사 당지풍을 만난 사람은 우군측이 아니라 홍경래로,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는다.

12) 앞서 5회에서는 ‘初上長安’이라고 하였기에, ‘재상경락(再上京洛)’이라고 해야 할 듯한데, 남북의 공간감각에 의해서 ‘내려간다’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13) 네 번째 장안을 방문했다는 의미에서 ‘四下長安’으로 추정하였다.

홍경래가 이조판서에게 청탁하여 평양 대상 객재홍을 포삼별장이 되도록 함.

- ⑭ 운수 무효는 유흥령남(遊行嶺南)하고 직흥 광업은 니왕북경(來往北京)이라: 운수와 무효가 각기 남쪽 지방을 돌아다니나 역사(力士)를 얻지 못한 채 속리산에서 재회하고 객재홍이 이광업을 수장으로 삼아 북경으로 떠남.
- ⑮ 직흥은 명파순터부(名派順天府)하고 광업은 견기평양성(見欺平壤城)이라: 상부사 일행을 따라 포삼별장으로 북경에 간 객재홍은 홍삼과 각 지방 대상의 물건을 환매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고, 귀국 길에 평양에 머물던 이광업은 평양에서 평양기생 패월에게 농락을 당함.
- ⑯ 당살품은 장동(壯洞)에 거상(居喪)하고 홍경리는 가주(嘉州)에 현기(懸旗)라: 훈련대장이 구강토 회복을 유언으로 남긴 후 죽고 홍경래는 가산에서 현기식을 거행함.
- ⑰ 원수부는 사주총전(私鑄總錢)하고 송수문 결련마적(結緣馬賊)이라: 홍경래 등이 가산에서 가짜 돈을 만들어 군졸을 모으는 데 사용하고 송수문은 마적 두령 호검과 결탁함.
- ⑱ 홍경리는 할거등주(割據定州)하고 박기풍은 봉명서정(奉命西征)이라: 마경주를 죽인 후 발각될 위기가 닥치자 홍경래가 미리 기병하여 청북 지역을 점령하나 청천강 범람으로 안주를 공격하지 못하고 정주성으로 들어감.
- ⑲ 불강은 전망서림성(戰亡西林城)하고 튀영은 포발북장대(砲發北將臺)라: 점령했던 청북지역의 고을을 다시 빼앗기면서 불강 등이 전사하고 관군이 손태영의 제안에 따라 지도를 파고 폭탄을 묻어 북장대가 무너지면서 홍경래란은 진압됨.

회장의 제목은 두 구절씩 대구가 되도록 배치하고 있으며, 중간에 수정한 흔적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2회의 경우에는 “~~백면서상어 불수카~~ 하고 ~~초탁영웅어 당검략라~~”라고 적었다가 다시 고쳐 적었다. 삭제된 제목이 3회의 내용과 유사한 것을 보면 3회의 제목을 잘못 썼다가 고친 것으로 보인다. 7회에서도 “~~김항로는 함락루영어라.~~”하여 삭제한 제목이 보이는데, 김항로가 활약한 내용이 그 다음 회인 8회에 나오고 있다.

## 2. 등장인물

전낙청의 〈홍경래전〉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는 만큼, 홍경래나 우군칙을 비롯하여 다수의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행적은 유사하나 실제 역사기록과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고 아예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인물도 등장한다. 실존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인물들 중 상당수는 허구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점에서 역사적 실존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한문본 〈홍경래전〉이나 〈홍경래실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주요 등장인물의 절반 이상은 홍경래와 함께 개혁과 반란을 꿈꾸는 인물들, 즉 동조자들이다. 주요 등장인물을 학식을 갖춘 사인(士人), 좌수 등의 이속(吏屬)들, 무예가 출중한 무인들, 재력이 있는 인물들, 그리고 기생과 승려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자.<sup>14)</sup>

사인(士人): 홍경래, 우군칙, 김창시, 루불강, 홍문거, 송수문

이속(吏屬): 윤원섭, 김만릉, 전달충, 유대엽

무인(武人): 홍총래, 김사용, 김오개, 양시위, 이하영

부인(富人): 이능백, 김이대, 곽재홍

기생: 양룡, 산매, 패월, 경면, 명월, 락화, 설중매

승려: 운수, 무효

사인(士人)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과거에 뜻을 두었으나 서북인에 대한 차별로 급제하지 못한 탓에 울분을 품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중에서 홍경래, 우군칙, 김창시 관련 내용은 역사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문화 류씨 출신의 루불강, 강계의 선비 송수문, 귀성의 선비 홍문거는 역사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허구적으로 설정한 인물이 아닌가 한다.<sup>15)</sup> 송수문은 실존인물 송지렴<sup>16)</sup>과 형제로 등장하는데 단신

14) 이러한 분류는 오수창, 『조선 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일조각, 2002)에서 홍경래란 주도 세력을 ‘저항지식인’, ‘壯士’, ‘大商人’, ‘鄉人·吏屬’으로 나눈 것을 참조하되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농업과 상업을 통해 재력을 갖춘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 모두 ‘富人’으로 묶고,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전낙청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생과 승려를 추가했다.

15) 이하 등장인물에 대한 역사기록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순조실록』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16) 송지렴은 『순조실록』에서는 의병장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한문본 〈홍경래전〉에는



으로 마적인 호검을 설득한다.

이속(吏屬)인 윤원섭은 아버지가 서북인 차별로 인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자 한을 품고 죽은 뒤 향청에 출입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역사기록에서는 가산의 이속이면서 홍경래란 이후에 반란군에서 가산군수로 임명했던 인물이다. 전달충은 『비변사등록』에 평양부의 퇴역 영리(營吏)로 기록되어 있는데,<sup>17)</sup> 시기는 다르지만 지위는 소설과 비슷하다. 유대엽과 김만룡은 실존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유대엽은 소설에서 영변의 좌수인데, 홍충각과 그의 누이 은애의 혼인담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김만룡은 홍경래가 평양에서 양시위, 광재홍과 교류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인물이다.

무인(武人)들 중에서 홍충래와 김사용, 양시위는 역사적 인물의 행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홍충래는 홍경래의 동생으로 설정하기 위해 홍충각에서 이름을 바꾸었고, 김사용은 역사 기록에서는 빈한한 향족(鄕族)이지만<sup>18)</sup> 소설에서는 부유한 무인집안 출신의 장사로 등장한다. 김오개는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는데, 소설에서는 빈민구제를 많이 한 부유한 농민이면서 힘이 센 장사로 등장한다. 이하영은 서북 출신의 금위영 무사로 역시 실존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재력을 갖춘 부인(富人)들은 봉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비중 있는 인물이 김이대이다. 김이대는 역사 기록에는 정주의 향임(鄕任)인데<sup>19)</sup>, 소설에서는 봉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대는 부유한 농민으로 등장한다. 이능백은 역사 기록에서는 이름을 찾을 수 없는데, 김이대와 함께 자금을 대는 부유한 농민으로 등장한다. 또한 광재홍은 평양의 부유한 상인으로, 포삼별장이 되어 포삼 무역을 담당하면서 수완을 발휘하여 봉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 특이한 점은 여러 역사 기록에서 빠짐없이 거론되는 이희저가 전낙청의 소설에서는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자가 이희저의 존재를 몰랐거나 알았어도 그리 탐탁치 않았기 때문에 등장시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

홍경래의 부하로 호병을 요청하는 임무를 맡았다가 김사용의 패전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송지렴의 배신에 대해서는 『개벽』이나 『별건곤』 등 1920년 이후 잡지에서도 거듭 확인되는데, 이는 한문본 〈홍경래전〉의 영향으로 보인다.

17) “平壤府退役營吏全達忠, 自是大獮, 作弊營邑” (『비변사등록』 ‘철종 1년 4월 15 일’조),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참조

18) 오수창, 앞의 책, 266-268쪽.

19) 위의 책, 258쪽.

데, 〈홍경래실기〉를 읽은 것이 확실한 만큼<sup>20)</sup>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밖에 낙화 등 서울의 기생들과 양릉 등 평양의 기생들은 역사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소설에서는 인물을 규합하고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낙화와 양릉은 모두 홍경래의 기첩이 되기를 자청하며 홍경래는 서울과 평양에 있는 이들의 기방을 중심으로 거사에 함께 할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이 대목에서는 광통교 기방의 대화와 노래 등이 자세히 서술되면서 19세기 기방 광경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효와 운수는 승려이면서 루불강, 김사용과 함께 봉기를 도모하기로 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역사(力士)를 찾아 남쪽을 두루 다니면서 겪는 에피소드가 서술되고 있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간 역사(力士)가 실제로는 별 볼일 없고 외모상으로 연약해 보이는 어린 소년이 의외로 힘이 세다는 식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다. 예를 들면, 문경새재에서 젊은 아낙을 희롱하던 칠척 장신의 사내가 아낙의 남편인 어린 소년에게 혼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는 〈각저소년전〉과 유사하다.<sup>21)</sup>

전낙청의 소설에서는 위의 인물들 외에도 서울의 고위 관리들이 등장한다. 먼저 홍경래가 광통교 기방에서 만나서 어울리는 인물들로 이호민과 당기풍이 있다. 이들은 양반의 자제로서 광통교 기방을 드나드는 방탕한 인물인데, 홍경래와 어울리면서 북벌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다. 홍경래는 이호민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인 이조판서 이만수와 처남인 심상규를 포섭하고 당기풍을 통해서는 훈련대장 당계랑을 포섭한다. 이호민, 이만수, 심상규 등은 홍경래와 동시대에 실존했던 인물들인데, 소설에서는 이들의 실제 행적을 이용하여 허구화 했다. 즉, 이만수는 소설에서 이조판서를 하다가 평양감사가 된 인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1808년 호조판서를 거쳐 1810년부터 홍경래란 발발 당시까지 평안도관찰사로 있었다.<sup>22)</sup> 조정의 충신이면서 평안도에 부임했다는 점은 실제 행적과 소설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지만, 이만수가 홍경래와 교분을 맺는 내용은 작가가 꾸며낸

20) 17회에 들어 있는 '付記'에서 〈홍경래실기〉를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론한다.

21) 〈각저소년전〉에 대해서는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245-256쪽 참조. 전낙청의 〈홍경래전〉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야담집의 영향으로 보이지만, 구비전승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22) 이하 조정의 관리에 대한 정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참조함.

이야기이다. 심상규 역시 이조, 형조, 호조참판 및 전라도관찰사를 거쳐 홍경래란 당시 병조판서를 했던 실존 인물이다. 병조참판을 거쳐 병조판서를 한 소설 속 인물과 유사하지만, 이만수와 사돈지간이며 홍경래와 결탁했다는 소설의 내용은 허구이다. 이호민은 실제로는 황해감사, 이조참판 등을 지낸 인물인데, 소설에서는 이만수의 아들로 등장하며 홍경래의 대리시험으로 장원급제한다.

또한 서울사람이면서 안주병사로 부임한 당지풍은 당기풍과는 숙질관계로 홍경래 등과 동지적 관계를 맺으며 봉기준비를 돕는다. 홍경래와 김창시는 당지풍을 설득하기 위해서 불평등한 사회를 전복시키려던 애초의 계획을 바꾸어 고구려의 구강토 회복을 위한 복벌을 주장한다. 당지풍은 18회에서 별다른 언급 없이 '박기풍'으로 이름이 바뀌고 있는데,<sup>23)</sup> 애초에 박기풍을 의식하고 당지풍이란 가상의 인물을 설정했다가 중간에 박기풍이란 이름을 노출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존인물 박기풍은 홍경래란 당시 순무중군이었다.

이처럼 전낙청의 소설에서는 허구적 인물이 적지 않으며 실존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허구화되어 있어, 역사기록에 비교적 충실한 〈신미록〉이나 〈홍경래실기〉, 한문본 〈홍경래전〉과 차이가 있다. 그만큼 작자가 역사적 사건 자체를 재현하기보다는 자신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서북출신인 작자의 소망을 보다 강하게 투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3. 서사구성

전낙청의 〈홍경래전〉은 우군칙, 홍경래, 김창시 등 몇몇 주요인물을 중심으로 이들의 동선에 따라 서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물 간의 대화나 행적이 지나칠 만큼 상세하게 묘사되면서 서술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이 점에서 홍경래란과 관련된 내용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문본 〈홍경래전〉이나 〈홍경래실기〉와는 차이가 있

23) 박기풍은 18회 중간에 처음 이름이 거론되는데, 김항로가 병사 박기풍을 처음 만나는 다음 장면을 보면 당지풍이 곧 박기풍과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 “경인 박기풍이 부임하거날…… 향로는 발뺌하여…… 경리의 당안 주선한 일과 거주니의 극성 준비된 것과 지홍의 상업 리결을 말하고”(289쪽)

다.<sup>24)</sup>

전체서사는 내용에 따라 인물을 규합하는 과정과 봉기를 준비하는 과정, 봉기 이후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인물을 규합하는 과정은 다시 우군척, 김창시, 홍경래 등이 사회에 대한 불만세력을 동지로 끌어들이는 과정과 동지들이 모두 모인 대회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봉기를 준비하는 과정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포삼무역으로 군비를 마련하는 내용, 가산에 가시성을 조성하여 뒤에 군졸들을 모아 훈련시키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물규합 과정이다. 전체 19회 중에서 7회까지 인물을 규합하는 과정이 주로 서술되고 있다. 8회부터 17회까지는 봉기를 위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홍삼 무역과 주전(鑄錢)을 통해서 군비를 마련하는 내용이 서술되는데, 인물을 규합하고 여러 차례 대회를 여는 내용도 중간 중간에 서술된다. 이렇게 본다면, 전체 서술분량 중의 상당부분이 인물을 규합하는 과정에 할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봉기 이후의 이야기는 18회 중간부터 서술되고 있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각 장회별 서사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1과 같다(서술비중에 따라 비중이 높은 경우 ■, 낮은 경우 □로 표시).

표1-〈홍경래전〉의 단락별 서사전개

장회	주요 서사내용								
	인물규합			봉기 준비			기병 이후		
	동지포섭	통합	대회	대연조	포삼무역	가시성	기병과정	청북점령	정주성
2	■								
3	■								
4	■								
5	■								
6		■	■	□		■			
7	■			□					
8			■	■					
9	■			□					
10	■								

24) 물론 이들 작품에서 장면이 구체적으로 서술된 대목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허구적 장면화가 두드러지지 않아 역사기록의 성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1	■								
12	■		■						
13					■				
14	■	■	■		■				
15			■		■				
16	■		■		□	■			
17	■		■		■	■			
18			■				■	■	
19									■

표1에서 알 수 있듯, 봉기하기 직전 상황과 봉기 후에 청북(淸北)지역을 점령하는 과정, 의병과 관군에 밀려서 정주성에서 저항하던 상황이 각 한 회 정도의 분량으로 총 두 회만이 홍경래란의 발발부터 진압까지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전체 19회 중에서 단 2회만이 홍경래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에 간행된 방각본 〈신미록〉이나 〈홍경래실기〉가 홍경래란 발발 이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한문본 〈홍경래전〉에서도 거사를 준비하는 과정까지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에 그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면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인물을 규합하는 과정부터 자세히 살펴보자. 서북인물을 포섭하는 과정과 경인(京人)을 포섭하여 교류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평양 인물을 포섭하는 내용, 마적 호검과 결탁하는 대목이 추가되어 있다.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홍경래와 우군척이 각각 서북차별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동지를 모으고, 이들에 의해 포섭된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인물들을 끌어들이며 각기 세력을 키우다가 주요 인물의 만남을 계기로 통합된다. 즉, 우군척이 김사용, 루불강, 홍총래를 포섭하였는데, 김이대와 뜻을 함께 한 홍경래가 동생 홍총래를 만나면서 이들이 한 무리로 통합되고 있다. 또 운수와 무효는 루불강, 김사용을 만나 결의한 후 남쪽 지방으로 인물을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홍경래, 이호민, 당기풍 등과 만나 동지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과정은 ‘대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홍경래와 그 동조자들은 매년 대회를 열면서 대연조와 포삼무역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봉기를 구체적으로 추진한다.<sup>25)</sup>

25) 한문본 〈홍경래전〉에서도 홍경래가 10년 동안 동지를 규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군

다음으로 봉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 부분에서는 여타의 흥경래 서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대연조나 포삼무역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다. 대연조는 대규모 군사 훈련으로 『비변사등록』 ‘정조 14년(1790년)’ 7월26일조에 “北邊各邑, 有自十月至二月, 每朔鍊操之例”라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정기적인 군사훈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낙청 소설에서 대연조는 서북지역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청남과 안주를 중심으로 한 청북으로 나누어 가상 전투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연조 기간 중에 소요되는 군량미를 마련하고 대연조를 위해 조정을 설득하는 등의 준비과정이 자세히 서술되고 있다. 또한 대연조 이후에는 대연조 기간 중 무인들의 활약이 거듭해서 서술되고 있다. 대연조 대목은 봉기를 위한 군사훈련이라는 서사적 의미도 있지만, 가상의 전투를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서사적 흥미를 고양시키고 있다.

이 점은 포삼무역 과정에 대한 서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흥경래 등은 봉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포삼무역을 이용하기로 하고 고관에게 청탁하여 해마다 포삼별장을 하던 개성상인 박성순 대신에 객재홍을 포삼별장으로 차정토록 하였다. 그리고 객재홍은 상부사 일행과 함께 평양, 의주, 봉천, 산해관을 거쳐 북경에 들어가 포삼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돌아온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무역을 통한 치부(致富)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게 서술되고 있다.

봉기 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목은 가시성에 관한 서술이다. 가시성은 실제 흥경래의 근거지였던 신도(薪島)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첫 대회 이후 김형두가 은밀히 가시나무를 심어 조성한다. 가시성이 완성된 후 이곳에서 대회를 열어 흥경래를 원수로 추대하는 현기식을 거행하고 대회가 끝난 뒤 역졸과 교군을 억류하여 군졸로 삼고 본격적으로 훈련시킨다. 그리고 17회에는 머슴과 물지게군, 거지 등을 가시성으로 유인한 뒤 군졸의 수를 늘리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통해서 봉기를 위한 준비가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봉기 이후의 내용이 서술되는데, 18회에는 흥경래 등이 위험인물인 마병주를 처형함으로써 계획이 발각될 위기가 닥치고 이로

---

적이 북자 행세를 한다는 점 외에는 각 인물들의 행적이 한문본과 다르다.

인해서 애초의 계획보다 앞당겨 기병하게 되는 과정과 붕기 이후 첫 번째로 가산읍을 함락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가산읍과 박천읍을 함락시킨 후에 안주성을 공격하지 않고 정주성으로 들어가서 저항하다가 결국 정주성이 함락되기까지의 과정은 <신미록>이나 <홍경래실기> 등 홍경래 관련 서사물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는 작자가 기존의 기록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량상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이 대목을 홍경래란에 대한 작자의 의식을 살필 수 있는 부분으로 주목해보고자 한다.

### III. 홍경래란의 재구성

#### 1. 붕기의 목적

서북인 차별은 전낙청의 <홍경래전>에서 가장 중요한 붕기의 원인으로 서술되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서북출신으로서 불평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상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데, 예를 들어 루불강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학식으로 말하면 그 자가 시부간 한당 짓는 동안 자기는 두 당 세 당 지을 것이오 인격도 그자보다 코이 밋근하여도 하지부족이 업거날 제 하나비 썩다구 등다이고 남을 업수이 보니 그 놈의 뼈을 들츠어 닉여 가루을 만들어서 북풍 세인 바람에 날너스면 속이 시원할 듯하나 썩야 잇고 업고 썩 팔기는 기되로 이슬 모양이니 여러 썩 못 팔게 하는 것이 상칙이다 하고 못 팔게 할 방도를 싱각하니 아모 별 방도가 업고 기현역털(改弦易轍)이란 수 밧게 업스니(11쪽)<sup>26)</sup>

루불강은 실력도 없는 무리들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을 막으려면 개현역철(改弦易轍)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루불강이 언급한 개현역철은 제도적인 개혁을 의미하며,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개현역철을 주장했던 루불강의 생각은 김사용과의 대화를 통해서

26) 원문을 인용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한자를 병기하고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를 추가함. 이하 동일.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다.

불강이 이 말을 들으니 캄〰하게 막케든 가슴에 허가 빗치우는 듯 “자네 말이 티우 유리하네. 현금(現今) 쾌락을 멋〰 사람이 자기네 독점물도 만들고 다른 사람은 구경도 못하게 하는 고로 나도 갖치 구경코져 생각해 보아스나 기현역탈하기 전은 불가급(不可及) 불가망(不可望)이로고나.” 사용: “기현역탈하여 전테(全體) 인류(人類)가 쾌락할 것 갖흐면 누가 림네(念慮)하고 수고할가. 현시 우리 쾌락하는 집은 거처도 군식하지만 다 부퓌히야 바람이나 비가 오기만 하면 던복(顛覆)될 터이다. 그런 고로 미리 혈어니고 식로 성조(成造)할 터이다.” 불강: “식로 성조할야면 직목(材木)이 이스야 할지니 직목 구하기가 용이하냐? 나도 변〰 못하지만 한 기 직목이 되는 것이 엇더할가?”(12쪽)

개현역철을 주장하는 루불강에게 김사용은 낡고 썩은 집을 헐고 새로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루불강은 자신이 재목이 되겠다고 한다. 김사용, 홍총각 등 무인들은 루불강이나 홍문거, 김창시 등과 같은 선비들처럼 ‘낙제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도 역시 서북인의 ‘상실감’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는 우군칙, 김사용, 홍총래가 의기투합하는 작품 초반의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군축이) 심희가 동하고 괴운이 북밧치니 무언 등 실언하기를 “이 도흔 강산에 주인이 어딤 갔나?” 총리는 나이 어린 고로 답하기를 “주인이 어딤 가? 우리가 주인이지오.” 사용 “우리가 주인이지만 우리의 락원(樂園)이 안이오 경수(京讐)의 락원이 되어스니 우리는 한원(恨怨)로라.” 총리 “그러면 도로 찾지” 군축이 무릅을 티면(서) “과연 남자로다. 건탈하였든 물건 환탈코져 하니 장하다만, 너의 독력(獨力)이나 사용의 독력이나 너의 독력으로 찾는 것이 안이오 우리 삼인(三人)이 합심하야 찾는다. 네가 동심협력(同心協力) 할터이냐?”(9쪽)

자신들의 땅을 서울사람에게 빼앗겼다고 말하는 김사용에게 홍총래는 빼앗긴 땅을 도로 찾자고 하고 우군칙도 이에 동의한다. 이들이 땅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들 지역을 다스리는 탐학한 관리에 대한 분개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오개와 김창시의 대화를 살펴보자.

오기 “석다산 일은 누구든지 심이 있고 쓰거운 피 잇는 자는 발 벗고 나설 일이라. 리모의 청백(淸白)을 향당된 리가 알고도 묵무일언하니 리모의 원통은 고사하고 경인(京人) 강도의 량자아심을 조당함이니 리모에게 헹하는 부도(不道)을 김모 박모의 게는 못 헹할가? 그딴로 나아가면 영유 일음이 그 강도 현령(縣令) 놈의 어육이



될지라. …… 랑서(兩西) 우마(牛馬) 디우(待遇)은 일도일석(一朝一夕)에 시작된 것이 안이고 고구려 복멸한 후로 시작되어 유점 이리로 금일에는 산궁수진한 극도라.”(47쪽)

김창시가 이모(李某)를 괴롭히는 고을 현령에 저항한 김오개의 행동을 “영웅호걸의 일”이라고 칭찬하자, 김오개는 경인(京人) 강도(強盜)가 단지 이모만을 괴롭히는 데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 하면서 서울에서 파견된 경인 사또의 지배를 받는 것을 고구려가 망한 다음부터 시작된 ‘우마(牛馬) 대우’에 빗대고 있다. 수탈자로서의 현령의 모습은 사실 서북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삼남 이남에도 탐관오리에 대한 민(民)의 불만과 분노는 있었다. 그럼에도 김오개는 이를 서울에서 온 관리들에 대한 반감과 결부시켜 서북이 우마 대접을 받았다고 분개하고 있다. 이는 앞서 김사용과 홍충래가 서북을 ‘경수(京讐)에게 빼앗긴 땅’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주요인물들이 드러내는 서북 차별에 대한 불만과 ‘경인(京人)’에 대한 적개심은 이들이 경인(京人)인 당지풍을 끌어들이면서 약화되고 있다. 김창시는 안주병사 당지풍을 포섭하기 위해서,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병을 물리친 고구려가 망한 뒤에 고려가 송나라 원나라에게 수모를 받고 조선이 명나라 청나라의 치욕과 임진왜란의 수모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러면서 “강랑이은 방치 갖고 수수는 뷔 갖고 조 이삭은 허리씨 할 만”한 비옥한 만주 땅을 잃은 것을 한탄한다. 당지풍은 김창시의 말에 동의하면서 고려 말 인당(印璋)과 효종 때 이완이 복벌을 중단한 일을 안타까워하는데, 이에 김창시는 인당은 군주의 말을 거역할 용기가 없어 실패했고 이완의 복벌은 썩은 선비 허생으로 인해 중지되었다고 하면서 당지풍에게 고구려 구강토 회복을 위한 복벌을 하라고 부추긴다.

김창시가 당지풍을 복벌로 설득하면서 서북 차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는 약화된다. 서북출신 인물을 포섭할 때마다 서북차별이 다시 언급되지만, 이호민이나 당지풍 같은 경인을 포섭하는 과정에서는 인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비옥한 만주 땅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만 강조된다. 이는 봉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나중에는 이로 인해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애초의 목표가 ‘복조선(만주) 회복과 사색혁파’로 변경되기에 이른다.<sup>27)</sup> 그런데 복벌 주장은 고구려를 정통으로 보았던 20세기

초 서북 지식인들의 북방사 인식과 일치하고 있다.<sup>28)</sup> 따라서 체제 전복의 목표가 수정되었다고 해서 서북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구강토 회복’에 대한 등장인물의 염원은 ‘만주’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있는 듯하다. 비옥하고 풍요로운 만주에 대한 작자의 의식은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안정복 등을 중심으로 만주를 우리의 구강토로 보려는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의 빈농이 만주로 이주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주에 대한 작자의 인식은 그리 특이하지는 않다.<sup>29)</sup> 더구나 작자가 만주 이민이 가시화되던 19세기 후반 서북지역에서 성장하였다는 사실은 만주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홍경래가 호적(胡賊)과 결탁했다는 소문<sup>30)</sup>이 만주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맞물려서 ‘구강토 회복’이라는 봉기의 새로운 목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 2. 송림 전투에 대한 다른 기억

홍경래란에 대해서는 반란 진압 직후에 국가에서 기록한 것과 민간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다수 남아 있는데, 반란이 일어난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반란 직후부터 정주성이 함락하기까지 사건의 경과에 대한 내용은 문헌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19세기 중반에 방각본으로 간행된 〈신미록〉에도 역사기록과 크게 다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sup>31)</sup>

---

27) 홍경래는 호조판서 이만수와 병조참의 심상규와 대화한 뒤 이를 김사용에게 전하면서 “사석혁파나 구강토 회복은 극력 원할지나 왕실던복은 극력반디할지니 망상 두지 말나 하기로 나도 심각한즉 왕실 던복한디야 별신통할 것 업슬 것이오 사석만 혁파하면 왕실은 허위될지니 그러면 상하귀천 업시 만인이 일을 평등으로 지닐지니……”라고 말하고 있다.

28) 20세기 서북 지식인의 북방사 인식에 대해서는 장유승, 『조선 후기 서북지역 문인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230-244쪽 참조.

29) 이명중, 『근대 한국인의 만주인식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참조.

30) 『진중일기』에도 홍경래가 호병과 결탁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며 『순조실록』 순조 12년 2월 16일조에는 김삼홍과 박진벽이 홍경래의 명으로 호병에게 구원병을 청하는 편지를 가지고 가다 잡혔다는 내용의 공초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홍경래가 고의로 퍼트린 소문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문본 〈홍경래전〉을 비롯한 20세기 자료에서는 이를 사실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전낙청의 소설에서도 호적과의 결탁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홍경래란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 한문본 〈홍경래전〉에는 송지림의 배신으로 호병이 오지 않았다고 했고<sup>32)</sup> 1917년에 간행된 〈홍경래실기〉에는 “기녀와 풍악을 싣고 팔도로 든니며 대도회처와 큰 포구에 다다라 노리를 비설”하여 구경하러 온 사람 중에 나이 젊고 신체가 장대한 사람들을 청하여 술에 취하게 한 후에 배에 태워 부하를 삼았다는 내용과 전라도 전주의 힘이 세기로 유명한 문장사가 홍경래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자신도 들지 못하는 무거운 짐 보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는 것을 보고 후에 홍경래란이 일어났을 때 관군으로 출전하기를 꺼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홍경래가 박천의 송림에 주둔한 후 갑작스런 큰 비로 청천강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안주성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다. 20세기에 홍경래에 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홍경래에 대한 전설이 표면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3)</sup>

전낙청의 〈홍경래전〉에도 이전의 홍경래 서사에는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는 문장사를 제압한 이야기와 청천강 물이 불어났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다만, 전낙청의 소설에서는 문장사를 제압한 사람이 홍경래가 아닌 부유한 농민 출신 김오개로 서술되고 있다. 〈홍경래실기〉와 유사한 점만 보면 그 영향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홍경래실기〉에 대한 작자의 태도는 자못 비판적이다. 이 점은 홍경래군이 박천의 송림에 주둔할 때부터 정주성에 입성하기까지의 대목에 삽입되어 있는 다음의 ‘부기(付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홍경리실기에 관군이 진전 송림촌 일절은 전부 罔說이라. ④경력은 二十三日 오후에 퇴군하여 二十五日에 덩주에 입성하였고 또 히빙탕일노 의병 일족이 청강을 건너가 보지 못하였거날, ①자조 성하에 와서 싸움을 도두은다 하여스니 히빙탕에 선척이 업거날 비도강 하였든가. 또 ②이십칠일 평명에 우후 리히승으로 둥군을 삼고 함중순천으로 좌우익을 삼아 출전하라 직촉하니 히승이 겁하고 가지 안음으로

31) 〈신미록〉의 내용구성에 대해서는 이지영, 「홍경래란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신미록〉의 형성맥락에 대하여」, 『어문연구』 43권 3호(2017) 참조.

32) 각주 16참조.

33) 청천강 범람에 대한 이야기 등이 이전부터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20세기에 새롭게 형성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홍경래실기〉의 서문과 전체적인 서술태도로 보면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보다는 기존의 이야기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

성문 밖 지너어 좃고 성문을 닷이다 하여스니 이십오일에 출전하였든 사람이 이십칠일 이라 겁탈가 쏜 결빙 삭강된 강이 안이고 디우 탕일노 허빙되었든디 관선은 표투하여 업서지고 서강이나 로강에 잇는 풍선을 사용코져 한들 용이치 안코 설혹 사용한다 할지라 삼천 명 군병을 월강 식히라면 무려 이반일은 허비할지니 접전이 되어도 이십칠일 초훈후가 될지라. 그러면 ③경적이 었지 이십칠일에 호성령을 넘었다 하여슬 가. …… ⑥최초 이십칠일에 관군이 처음 될 썩에 우후승은 델도사와 자오영장의 너정을 아는 고로 절도사의 명날을 거절하기를 ‘절도가 디장이시니 디장이 신선사출하시오 나온 수성칙임이 이스니 수성하겠습시다.’ 하는 것을 함중부사 윤육닐이 검을 썩어 들고 힘흥코져 함으로 희승이 복종하고 나서디 병사는 현무문까지 전송하고 디군이 출성 후에 성문을 탁견하니 희승은 방성통곡으로 월강하였다 하(는) **안주성너려함 던설이 잇고** 민군이 둔취하였든 ⑦송림 한촌이 관군의게 소탕될 썩에 무죄한 랑민남녀가 도륙을 당한 고로 **그 자손들이 그 기계일을 이십팔일노 지디나니** 그를 보아도 알것시오 관군이 정월 초오일에 덩주 이언리에 당도하여스니 일빅리 힘당을 팔구일 허비함으로 리디는 그 지간 수삼만 명이 삼사 삭 먹을 랑식을 준비하게 하였고 ④경군이 너려오기 전에는 관민군이 접전이 업섯고 달천교 오룡포 등간 벌에서 관민군이 처음 접전인디 랑군 사상이 티다함으로 싯흘 보지 못하고 소모사의 권고로 관군이 명금하여 덩전되었든디 그 죽는 군사을 그 벌에 세 구당을 파고 반찬 젓 담으듯 하였다 하나니 송림전사는 전부 망설이라 독자는 짐작하시오.(328-329쪽)

위 ‘부기(付記)’에서 작자는 흥경래군이 23일에 퇴군하여 25일에 정주성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③) 〈흥경래실기〉에 있는 ①, ②, ③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흥경래 군이 안주성 아래에 와서 도발했다는 내용의 ①에 대해서는, 해빙으로 범람하였는데 어떻게 강을 건넌것냐며 반박했다. 또 27일에 출전하지 않으려는 이해승을 억지로 성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는 ②의 내용에 대해서는 25일에 출전했다는 〈흥경래실기〉의 내용과 어긋나며 또 27일에 호성령을 넘었다는 ③의 내용과도 모순된다고 하면서, 관군이 범람한 청천강을 넘어 공격하려면 이반일(二半日)이 걸릴 것이기에 접전은 27일 저녁 이후라야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월 28일자 평안감사의 등보(騰報)에 적변이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나도록 한 번도 출전한 적이 없었으며 29일 새벽에 송림촌을 공격할 예정이라고 한 것을 보면,<sup>34)</sup> 27일에 흥경래군과 접전을 벌였다는 〈흥경래실기〉의 내용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는 아마도 〈흥경래실기〉가

34) “賊變已至多日，尙不得一番出戰，萬萬憤惋……明日曉頭，領率前進，先擊於松林村留屯之賊是如是白乎等”(『순무영등록下-한국민중운동사자료대계』(여강출판사, 1985), 244쪽.)

다른 문헌을 인용하면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방우정의 『서정일기』 1월 10일자 기록에도 안주에서 25일에 처음 접전이 있었고 27일에는 송림에서 크게 적을 파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sup>35)</sup> <홍경래실기>의 서문에서 “관군을 따라 갖든 이의 약간 실록흔 것”에 약간 수정을 하여 내어 놓는다는 말로 보아 『서정일기』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방우정이 이 말을 들은 곳이 안주병사의 집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안주성에는 송림전투에 대해 안주병사 이해우의 장계와는 다른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전낙청은 홍경래군이 27일에 퇴주했다는 <홍경래실기>와 달리 홍경래군이 25일에 이미 정주성에 입성했다고 주장한다. 즉, 송림에서의 관군과 홍경래군의 접전은 허구이며, 27일에 관군이 안주성을 나와 공격한 대상은 홍경래군이 아닌 송림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경래군이 과연 25일에 이미 정주성으로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안주성 여항전설’이나 ‘송림 한씨의 기체 일’에 대한 언급으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작자가 살았던 정주성 일대에서 전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즉, 정주성과 송림 일대에는 홍경래군이 이미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군이 소탕작전이라는 명분하에 일반 백성을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기억이 전승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낙청의 ‘부기’는 서북인들의 집단기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설사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관군의 살인과 방화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전낙청의 소설은 이러한 기억을 표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붕기 실패의 원인

전낙청의 소설에서는 홍경래가 서울의 주요 대신들과 교류하면서 모의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장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낙청은 결국 거사가 이들로 인해 실패했다고 말한다. 서울 대관들의 동참과 배신과 관련하여 작자는 소설 말미에서 다음과 같은 ‘부기(付記)’를 남기고 있다.

35) 『서정일기』 임신 1월 10일(<http://db.history.go.kr>).

혹자가 당지풍, 리만수, 심상규, 리시영, 리희우, 윤옥널, 오티수, 윤민동 등 대관(大官)의 동참(同參)이란 말이 의아할 듯하나 흥문거의 자손은 그 아버지가 당지풍에게 무상출입(無常出入)한 것을 알며 집사 한룡삼이 이는 일이며 만수는 직품이 승직 되면 좌우랑상(左右兩相)이여날 강직(降職)으로 평양감사 자천(自薦)함은 경리가 남하(南下)할가 림너하고 그 남하를 막고져 함이오 리희우는 만수의 천(薦)으로 절도(節度) 되어스며 우후 히승에게 출전(出戰)을 명령한 즉 히승은 병사가 경리의 동당(同黨)인 줄 아는 고로 항거하고 가지 안으려 하여스며 오티수는 실신(失信)을 말하고 윤옥널은 견괴이변(見機而變)을 말하였고 또 경리가 허다한 각 딘에 만저 함중딘을 함몰(陷沒)식히고져 함은 무신(無信)을 덩티(懲治)함이오 윤민동은 자원 출전하여스나 진성진통(盡誠盡忠)이 업고 별제 위명으로 경리가 승하면 종당 경리를 도을 것이오 경리가 꺾하면 자원출전으로 자기 과실은 감초고져 하는 계책이라.(348쪽)

이만수, 심상규, 이해우는 역사적 인물들로 흥경래란이 일어났을 때 서북지역 문무 관직에 있었다. 작자는 흥경래란 당시 관군과 관련된 인물들이 흥경래의 봉기에 동참하였다가 후에 배신하였다는 허구적인 내용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만수, 심상규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이 흥경래와 동모한 내용은 소설 앞부분에서 나오지 않았다. 즉, 윤옥렬 등은 원래 흥경래에게 동조하다가 배신을 하는 인물로 등장하지만, 18회 이전에는 등장한 적이 없고, 반대로 이전까지 흥경래와 교류했던 것으로 서술된 이만수와 심상규는 막상 반란이 일어난 이후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 봉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인물 중에서 18회 이후에는 유일하게 박기풍만 등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중간에 이름이 달라지고 있다. 이처럼 봉기 전후의 등장인물의 구성을 보면, 마치 별개의 서사처럼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작가는 굳이 서울의 관리들이나 무인들과 결탁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배신을 직접적인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sup>36)</sup> 또한 우군칙의 말을 빌어 “윤옥렬의 반복은 실노 당부의 심간이 파렬되리 만치 분한지라. 위선 함중 소인놈부터 썬멸하고 차려로 도륙하리라”라고 할 만큼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36) 식량이 부족해지고 기대했던 호검의 구원군이 이르지 않자 지수하려는 흥경래를 군병들이 팔리면서 “우리가 리팔 덩회랑 등 가치 덕부도가 안이고 인당 리완터림 팔역창성을 위하여 날어났다가 소인의 비약으로 성공을 못하여스니 후세에 도소가 이슬지나……”(345쪽)라고 말하는 데서도 실패의 원인으로 소인의 배신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홍경래를 배신하고 자신들의 살길을 도모한 것은 서북인들였다. 처음에 홍경래난이 일어났을 때 이속이나 상인들이 적지 않게 협력하였다. 홍경래란이 발발한 지 며칠 만에 인근 고을이 함락된 것은 반란군과 내응한 세력 덕분이었다. 당시 평안도의 토호들은 처음에는 관망하고 있다가 상황이 반란군에게 불리해지자 의병을 이끌고 와서 관군과 합세한다. 서북의 토향들이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반란군에 합세할 수 있는 세력이었으며 상황이 반란군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sup>37)</sup> 그렇다면 홍경래를 배신한 것은 실제로는 경인이 아닌 서북민이었다. 한문본 〈홍경래전〉에서도 송지림이 처음에 홍경래의 부하였다가 나중에 배신하고 의병장이 되었다며 배신자라 비난했다.<sup>38)</sup>

전낙청 소설에서는 정주성의 거족(巨族)들이 반란군이 패했을 때를 대비하여 주육과 떡을 마련하여 관군에게 제공하는 장면이 있다. 이를 보면, 전낙청 역시도 지방 토호들의 기회주의적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

당주 이십사디성의 그 족속이 민병에 참여하여스니 민군이 꺾히는 날에는 런루가 이슬지라. 그런고로 안면 잇는 서춘보 의론하니 서씨는 그 전 가산군수 록 년 직임시에 다 안면 잇는 토향이라. 허락하기를 “네가 소모사의 겸 당주목이니 나의 무죄한 백성을 보호하지 안을가 그는 림너 노코 주육병을 마련하여 디군을 호쾌하라 그러면 무사하리라.”함으로 각문이 협력하여 수십작 소와 돛을 잡고 술과 떡으로 장졸의 밥을 불으게 하니(332-333쪽)

정주 지역 토민들이 서춘보와 의논하여 관군에게 술과 고기를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작자는 이들이 전세(戰勢)에 따라 어느 쪽도 될 수 있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서춘보가 ‘무죄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쾌를 허락했다고 한 대목을 보면, 작자는 정주의 백성들이 관군에 음식을 바친 것에 대해 분노나 안타까움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일로 서술하고 있다.

37) 김선주는 홍경래란을 주도한 계층은 의병을 일으킨 집단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홍경래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관망하던 세력들이 관군을 지원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Sun joo Kim, 앞의 책, 141-152쪽).

38) 이우성·임형택, 앞의 책, 157쪽.

한호운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전낙청은 서북민으로서의 동질감을 강하게 보인다. 역사에서 한호운은 일부러 정주성에 들어가 홍경래를 깨우치려 하다가 반란군에게 살해당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데<sup>39)</sup>, 소설에서는 그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도 아니니 나의 구차한 목숨을 앗기다는 멸문지환이 있슬지니 나 하나 죽어 자손을 안보하게 할 의사이니 빨리 횡형하라.” 군측이 눈물을 흘리며 무사를 명하여 횡형하고 수급과 시태를 성외에 던지며 소위 한호운이란 자가 당돌이 들어와 통역을 말하기로 처참하였노라 하니(341쪽)

전낙청의 소설에서는 한호운을 홍경래의 스승으로 설정하였기에<sup>40)</sup>, 위의 장면에서 그는 홍경래를 개유하려 정주성에 들어갔다가 여의치 않자 멸문지화를 면할 수 있게 죽여 달라고 한다. 이 부분은 꾸며낸 허구이지만 실제 역사에서 한호운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정주의 주민이었던 한호운이 홍경래에 의해 죽지 않았다면 홍경래란이 진압되고 난 뒤에 역도(逆徒)로 몰릴 위험이 컸다. 따라서 소설에서 한호운이 ‘멸문지화’를 피하기 위해서 죽여달라고 한 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설정이다. 한호운이 자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면, 서북의 토호들은 관군에 협조하는 쪽을 택했다. 작지는 양쪽 모두를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았기에 이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더구나 소설에서는 홍경래군의 장수인 김오개가 “압흘 당하여 접전하는 군사는 경군이 안이고 모도 향군이며 경군은 멀리 서서 총살노 방(관)만 하는” 것을 보고 전세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징을 울려 전투를 멈추기도 한다. 작자가 관군과 함께 반란군에 맞서는 향군(鄉軍)이나 의병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우군칙이 “각처 형대가 의병 명의로 온 것이 이십여 인이니 다솔군병은 안이나 그 역

39) 『순조실록』 순조 12년 5월 5일자에는 “定州人韓浩運，自京西下，直到定州城下，諭以逆順，辭氣激烈。賊徒總入城內，欲降之，浩運極口大罵，引頸就死”라고 한 비변사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다.

40) 전낙청 소설에서 한호운의 이미지는 한문본 〈홍경래전〉의 유학권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전낙청은 홍경래의 난 때 순절한 한호운을 홍경래의 스승으로 설정하여 후손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택한 인물로 그렸다.



천여명이라. 우리가 나아가 관군의 뒷본영을 파하고 류효원을 싱금하거나 죽이면 만여명 관군이 우리 군졸이 될지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작자는 의병과 반란군을 언제든지 협력할 수도 있는 관계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작자는 관군에 협조한 서북 토호의 배신을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았지만, 서울 출신 무인인 윤옥렬 등의 배신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한다. 이는 실패의 책임과 분노를 서북이 아닌 외부로 돌리려는 의식으로 보인다. 홍경래군이 초반에 안주성을 공격하지 않고 정주성으로 들어간 것이 봉기의 실패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sup>41)</sup> 작자는 홍경래군이 안주성을 공격하지 않은 이유를 청천강의 범람과 협조를 약속했던 이해우와 윤옥렬의 배신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소설에서 청천강의 범람은 윤옥렬이 배신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윤옥렬은 갑작스런 큰 비로 인해 물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적 아닌 티우(大雨)가 이서 히빙되니 이는 하늘이 남하 못하게 막는 도딘(兆朕)이올시다…… 남아(男兒)의 실신(失信)은 실신이라 할지나 흥(興)할 자을 도으면 히(害)가 업지만 꺾(敗)할 자을 돕다가는 가치 꺾하냐니 우리가 저와 언약은 리익(利益)을 위함이라 어리석게 언약만 고집하리오?(324쪽)

위 장면에서 윤옥렬은 청천강 물이 갑자기 불어난 것은 ‘천명’이라며 홍경래를 배신한다. ‘범람’에 대한 언급이 <홍경래실기>의 영향인지 서북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야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 쪽이든 거사의 실패를 전략의 실패로 보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청천강 범람을 사실로 인정하면 홍경래가 10년이나 준비한 거사는 전략적 실패가 아닌 천명으로 인해 실패한 것이 된다. 전낙청은 말미에서 “실로 천심이 불순이오 인사의 실탁(失錯)이 안이라.”고 하여 천명으로 인해 홍경래란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믿고 있다.

소설 말미의 정주성 함락 장면에서 홍경래는 “우리 가치 죽는 것이 무익이니 오늘 밤에 출성하여 권토중립을 도모하”하라는 부녀자들의 권유로 탈출한다. <홍경래실기>에서도 홍경래가 마지막에 탈출하며,

41) 「청강이복과 홍경래장군」, 『개벽』 39호(1923)에서 이를 거사 실패의 다섯 가지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는데, 이후의 잡지 및 신문 기사에서 이 점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한문본 〈홍경래전〉에서도 ‘정주의 야담’에 홍경래가 죽지 않고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다. 이들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홍경래의 생존은 홍경래에 대한 서북인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홍경래가 죽지 않고 ‘권토중래’하기를 바라는 서북민들이 홍경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전낙청은 홍경래에 대한 이러한 서북인들의 기억과 바람을 반영하여 소설을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전낙청이 창작한 〈홍경래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낙청의 〈홍경래전〉은 홍경래에 대한 20세기 지식인들의 관심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홍경래실기〉나 한문본 〈홍경래전〉과 달리 홍경래란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본격적인 역사소설이다. 또한 홍경래의 봉기 이후 보다는 봉기 이전의 준비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면서, 대연조나 포삼무역에 관한 대목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서사적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낙청의 소설이 홍경래란에 대해서 여타의 관련기록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먼저 전낙청 〈홍경래전〉은 봉기의 원인과 목적에서 서북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서북 차별로 인한 좌절감은 이 소설에서 봉기의 주요 원인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체제 전복이 봉기의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서울 양반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은 ‘고구려 구강토 회복’으로 변경되고 있다. 구강토 회복은 서북민의 북방사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경래란의 경과를 서술한 대목은,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서술비중은 낮지만 서북인으로서의 작자의식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작자는 홍경래란의 분기점이 되었던 송림전투에 대해서, 홍경래군이 이미 퇴각한 송림에서 관군이 일방적으로 살육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억이 사실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송림전투와 관련한 정주 사람들의 기억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작자는 홍경래군이 안주성을 공격하지 않고 정주로 퇴각한 이유는 청천강 물이 범람하였

기 때문이며, 애초 협조를 약속했던 경인들이 배신한 탓에 반란이 실패로 끝났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홍경래가 정주성을 탈출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처럼 전낙청의 〈홍경래전〉은 홍경래란에 대한 서북인의 기억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같은 정주출신이면서 《동아일보》에 〈홍경래전〉을 연재하였던 현상윤과 비교해 보아도 서북인으로서의 의식은 전낙청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낙청이 미주 이민자였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그가 홍경래에 주목한 이유는 단지 같은 서북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고국을 떠난 그에게 과거의 조국은 차별과 억압의 공간이었고 홍경래는 그러한 조국을 개혁하려는 영웅으로 상징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경래의 반란은 그에게는 고향을 상기시키는 소재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의 이민생활은 애초에 기대한 바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는 조선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미국으로 떠났지만, 미국에서도 여전히 가난은 지속되었다.<sup>42)</sup>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떠난 조선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졌을 것이고 그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깊어졌을 것이다. 이 때문에 홍경래란을 통해서 서북민으로서의 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낙청의 〈홍경래전〉은 이 글에서 주목한 위의 내용 외에 19세기 삶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이 글에서 논의한 것은 전낙청 소설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전낙청은 〈홍경래전〉 외에도 6편의 소설을 창작하였는데, 이들 작품은 초기 이민자의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전낙청 소설이 본격적으로 조명되기를 바란다.

---

42) 그의 조카인 전경무가 저술한 미간행 자서전 〈Quest in Exile〉에 의하면 전낙청은 조선에서 'scholar'였으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설득하여 미국으로 왔고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그와 가족들은 극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많은 지식들은 경제적인 궁핍과 인종차별로 인해 그다지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했고 이 와중에 그의 아내는 정신쇠약에 걸린 채 죽었다.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전경무, 〈Quest in Exile〉(미국 USC 대학 소장 자료).

전낙청, 〈홍경래전〉(미국 USC 대학 소장 자료).

〈홍경래실기〉(국립 중앙도서관 소장).

한문본 〈홍경래전〉(이우성·임형택 공역, 『이조한문단편집 하』, 일조각, 1978).

### 2. 단행본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2002.

Sun joo Kim, *Mar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 3. 논문

박호영, 「〈정주성〉 시 해석의 일 방향」. 『한중인문학연구』 36, 2012, 57-74쪽.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성아사, 「홍경래란을 소재로 한 상업출판물 연구-방각본 〈신미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송하준, 「홍경래란의 기억과 문학적 형상화」. 『서강인문논총』 5, 2017, 79-103쪽.

이명중, 『근대 한국인의 만주인식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이승복, 「〈정주가〉의 구조와 작가의식」. 『고전문학과 교육』 11, 2006, 155-189쪽.

이지영, 「홍경래란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신미록〉의 형성맥락에 대하여」.

『어문연구』 43권 3호, 2017, 131-156쪽.

장유승, 『조선후기 서북지역 문인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정환국, 「홍경래란을 바라보는 시선」. 『동악어문학』 55, 2010, 5-37쪽.

### 4. 사이트

『순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미주 한국일보》(<http://www.koreatimes.com/>).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 국 문 초 록

전낙청의 〈홍경래전〉은 홍경래란을 허구화한 소설로, 원고지 2,000매에 근접하는 장편소설이다. 전낙청은 1875년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서 20세기 초 미국으로 이주한 인물로 〈홍경래전〉 외에도 6편의 소설을 더 남겼다. 〈홍경래전〉은 전체가 19회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마다 회장제 목이 있다. 등장인물은 홍경래란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 외에 다수의 허구적 인물을 포함시켜 구성하였다. 전체 서사는 홍경래 등이 동지를 규합하는 과정, 봉기를 준비하는 과정, 봉기 이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분량상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동지 규합과정이다. 반면, 봉기 이후의 이야기는 18-19회에서만 서술되고 있어 여타 홍경래 서사물과는 차이를 보인다. 전낙청은 동지를 규합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고위 관리 및 무인들과 결탁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체제를 전복하려던 애초의 계획이 구강토 회복을 위한 복벌로 변경되고 있다. 또한 작자는 송림전투를 홍경래군이 떠난 뒤에 벌어진 관군의 일방적 살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봉기가 경인의 배신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경인의 배신을 천명과 연결시키면서 실패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전낙청의 〈홍경래전〉은 서북인이 기억하는 혹은 기억하고자 하는 홍경래란을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18. 6. 20.

**심사일** 2018. 7. 15.

**게재 확정일** 2018. 8. 27.

**주제어(keyword)** 홍경래란(Hongkyungnae Rebellion), 홍경래전(Hongkyungraejeon), 서북인(Northwesterner), 전낙청(Dunn Nak-cheong), 미주 한인(Korean-American), 평안북도(North Pyeongan Province), 정주(Jeongju), 만주(Manchuria), 송림전투(the Battle of Songlim), 구강토 회복(restoring the lost land)

## Abstracts

### A Northwesterner's memory of the Hong Kyungrae Rebellion: The case of Dunn Nak-cheong's Hongkyungraejeon

YI, Ji-young

Nak-cheong's *Hongkyungraejeon* is a fiction on the Hong Kyungrae Rebellion of 1812, which runs close to 2,000 pages in squared manuscript paper. Dunn Nak-cheong was born in 1875 in Jeongju, North Pyeongan Province, and moved to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20th century. He wrote five more novels in addition to *Hongkyungraejeon*. *Hongkyungraejeon* is composed of 19 chapters and each chapter has its own title. The characters include a number of fictional as well as historical ones related with the Rebellion. The novel has three parts: Hong Kyungrae and his confidants gathering like-minded people, preparation for the uprising, and the development after the incident. Quite a large part of the novel is devoted to the description of the process of rallying rebels, while the post-revolt progression is covered only in the last two chapters. This is a distinct feature from other stories dealing with the incident. The author depicts on Hong's collusion with Seoul-based high-ranking aristocrats and military officers in securing supporters for the rebellion, which played out as a crucial factor in altering the initial plan to overthrow the regime to an expedition to invade Manchuria and restore the lost land. He also claims that the Battle of Songlim ended in a unilateral massacre by the government forces after the departure of Hong's troops and that the Rebellion was ultimately put down by the betrayal of Seoul-based collaborators. Portraying Yoon Wooklyeol's treason as the will of Heaven, he expresses regret over the failed revolt. It can be argued that Dunn Nak-cheong's *Hongkyungraejeon* is a recollection on the Hong Kyungrae Rebellion from a Northwesterner's viewpoint.